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6월 10일(월)

<기자회견>

쿠팡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송파경찰서 수사관 교체요청 및 공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었고, 적어도 2017. 9.경부터 2023. 10.경까지 약 6년에 걸쳐 16,450명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되고 관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쿠팡대책위원회 등 70여개의 단체는 송파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쿠팡주식회사 등을 고발하였고, 수사를 통해 진상이 확인되고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고발인들은 송파경찰서에 담당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한편,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자 송파경찰서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조직적인 범죄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담당 수사관이 노골적으로 사안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 피고발인 측에 치우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하고 전면 재수사하여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날짜: 2024. 6. 11.(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송파경찰서 앞
 - 주최 : 쿠팡 대책위원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
 - 주요 발언
 - 발언 1. 고발대리인 발언: 김병욱 변호사
 - 발언 2. 엄중 수사 촉구 발언: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
- 기자회견 후 면담 진행 예정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